20170115-1132-_2012528 -90216 17. 1. 13. 8:27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17년 1월 15일(주일) 제1132호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겸손하라! 회개하라! 살아나리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D-6 … 나라, 교회, 가정을 위하여
1월 23일부터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시간 및 순서 변경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이제 6일 남았다. 이번 작은예수 40일새벽기도회는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를 주제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시작됐다.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 시작을 새벽기도로 장식하려는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교회에 직접 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CGNTV를 시청하는 것으로 새벽기도회에 동참했다. 군부대, 병원, 해외비전교회, 선교지 등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웠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기준으로 매일 1,6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나라, 교회,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김수경 자매(일본어예배)는 "어지러운 시국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다"고 했고, 이민경 자매(S브릿지)는"회개하기 위해 먼저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선지서를 본문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들이다. 박종길 목사, 이상준 목사, 이기원 목사,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유해근 목사(재한몽골학교), 김성묵 장로, 김하중 장로, 이기복 교수, 바샤르 선교사 등도 강단에 올라 메시지를 전했다.

이제 한 주 남았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각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5시 20분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CGNTV는 예배실황을 생중계하고 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끝난 이후에도 새벽기도는 계속된다. 1월 23일부터는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시간과 순서가 일부 변경된다. 서빙고와 양재를 비롯한 국내 온누리교회 1부 새벽예배 시간이 5시 20분으로 바뀐다. 장소는 서빙고 본당, 양재 사랑홀, 캠퍼스 본당이다. 새벽기도회 시간이 5시 20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올 수 있게 됐다. 2부 새벽기도회 시간도 변경된다. 서빙고와 양재 2부 새벽기도회 시간이 6시 30분으로 변경된다. 장소는 동일하다(서빙고 본당, 양재 기쁨홀). 예배순서도 달라진다. 찬양(7분), 기도 및 성경봉독(3분), 말씀선포(15분), 합심기도 및 축도(5분) 순으로 진행된다. 총 소요시간이 30분이다. 대학청년부 홀리스타를 포함한 온누리교회 모든 새벽기도회 진행순서가 이와 동일하게 변경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17 선교헌금 작정행사 29,473명 동참

선교헌금과 재능기부 언제든지 참여 가능

2017 선교헌금 작정행사에 29,473명이 동참했다. 재능기부도 600명이나 신청했다.

2000선교본부 본부장 김홍주 목사는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선교헌금 작정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선교헌금 작정행사는 끝났지만 선교헌금 봉헌과 재능기부 참여는 계속할 수 있다. 선교헌금을 봉헌하려는 성도는 각 캠퍼스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선교헌금 작정서'를 이용하면 된다. 재능기부는 QR코드나 온라인(http://bit.ly/2gnipne)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3215-3616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찬양사역자 '밥 피츠' 초청 찬양집회

인천 온누리교회 1월 22일 오후 2시

인천 온누리교회가 세계적인 찬양사역자 '밥 피츠'(Bob Fitts)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한다. 1월 22일 오후 2시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2017 글로벌 워십리더 컨퍼런스' 참석차 내한한 밥 피츠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대표곡과 간증을 들려줄 예정이다.

밥 피츠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작곡가로 잘 알려진 예배 인도자다. 'He will come and save you', 'Roman 16:19' 등의 대표곡이 있다.

문의: 032-437-9686

신년기획_ 돌이킨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 2면 기획_ 온누리교회 13개 유관기관장과 함께 4-5면 특집_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생명의 삶〉 6면

20170115-1132-_2012528 -90216 17. 1. 13. 8:27 Page 2

신년기획 돌이킨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가슴으로 낳은 열 명의 아이들과 함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저자 윤정희 사모



김상훈 목사(맨 오른쪽에서 두번째), 윤정희 사모(맨 왼쪽) 부부와 가슴으로 낳은 열 명의 아이들.

여기 CGNTV에 자신이 쓴 책의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 사람이 있다. 윤정희 사모가 그 주인공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그녀의 이름이 익숙하다. 지난해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 강사로 초대받았고, 두란노서원에서 그녀의 삶을 조명한 책을 출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열 명의 아이들을 입양했다. 윤정희 사모와 남편 김상훈 목사(강릉중앙감리교회 소속 강릉아산병원 원목), 가슴으로 낳은 열 명의 아이들이 날마다 천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아픈 아이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녀를 만났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윤정희 사모는 열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하은(18), 하선(17), 하민(14), 요한(13), 사랑(12), 햇살(12), 다니엘(12), 한결(11), 하나(6), 행복(4)이가 그녀가 가슴으로 낳은 자녀들이다. 강원도 강릉에 살고 있는 그녀를 찾아갔다.

첫인상에서부터 행복이 묻어났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들보다 끈끈하고 애틋했다. 강원도 강릉의 아름다운 해변을 뛰어 다니는 그녀의 가족들이 반짝이는 바다보다 아름다웠다.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작은 천국 같았다. 그녀가 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에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녹아 있다. 그녀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은 독자들이 한순간에 매료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녀가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08년이다.

"폐질환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하선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구순구개열로 언어치료를 받고 있던 하민이가 정상등급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제게 온 아이들과 부족한 저를 치유하고 변화시키셨어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책에 담고 싶었어요."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만난 하나님을 책에 담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렇게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약 3,000부가 팔렸다. 수익금은 약 300만원이었다. 그녀는 수익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마음먹었다.

"십일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가게, 사정이 어려운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수익금을 나눠서 보냈습니다."

5년 뒤 출판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책이 절판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 책은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셔서 나온 책이잖아요. 나중에라도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세요."

CGNTV는 또 하나의 가족

그 기도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지난해 10월 두란노서원을 통해서 절판되었던 그 책이 다시 세상에 나왔다. 이재훈 목사의 배려였다.

"지난해 4월 CGNTV 개국 11주년 행사에서 이재훈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를 보시자마자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책을 두란노서원에서 다시 출판하면 어떻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주셨어요."

그녀의 책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는 CGNTV와도 인연이 깊다.

"8년 전 책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 CGNTV 〈이홍렬의 편편한 북카페〉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저와 CGNTV와의 첫 만남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통일버스〉 등에도 여러 번 출연했다. 그녀는 CGNTV에 고마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지난해 인천에 사는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이가 하나 있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이혼하고 죽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CGNTV에서 제가 간증하는 것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전화통화 한 번만 하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녀와 통화를 하고 난 뒤 그 여성은 회복되었다.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비단 이 여성뿐만이 아니다. 그녀는 CGNTV를 통한 전파선교의 위대함에 깜짝 놀랐다. 전파선교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았다. 그때 지인으로부터 CGNTV가 100% 시청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쳤다.

"새로 출판하게 된 책의 수익금을 어디로 흘려 보내야 할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CGNTV가 전파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책 수익금 전액을 CGNTV에 후원했다. 그녀의 책을 사서 읽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파선교에 동참하는 셈이 되었다. 그녀는 전파선교에 후원할 수 있도록 해줘서 오히려 CGNTV에 고맙다고 했다. 애정도 각별했다.

"CGNTV는 저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10년 동안 이어진 아픔 그리고 기적

열 명의 천사들을 만나기까지 아픔도 많았다. 그녀는 네 번이나 유산을 했다. 2000년 그녀와 남편은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고 하은이와 하선이를 입양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입양했지만 아이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둘 다 몸이 약했다. 하은이는 눈 수술을 받아야 했고, 하선이는 폐질환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기도 했다. 이어 입양한 하민이는 구순구개열로 언어치료를 받아야 했고, 사랑이는 안짱다리로 제대로 걷지 못했다. 데려오는 아이들마다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

"10년 동안 병원과 심리치료센터만 다녔어요. 다른 것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기만을 바랐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딱 10년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선이는 언제 폐질환을 앓았냐는 듯 건강해졌고, 언어장애 2급이었던 하민이도 평범한 사람과 똑같이 말할 수 있게 됐다.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던 열 명의 아이들 모두 건강해졌다. 지금은 자신만의 꿈을 꾸고 있다.

"하은이는 아프리카 선교사, 하선이는 간호사, 하민이는 카누 대표선수, 걷지 못했던 사랑이가 일어나서 쇼트트랙 대표선수, 지적장애와 아토피 퇴행성 장애를 앓았던 요한이는 외교관을 꿈꾸고 있어요."

그녀의 아름다운 선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연탄봉사도 한다. 가족구성원 중에 이 일에 불만이 있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 아이들을 어쩜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궁금했다.

"아이들을 저의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제가 배울게 참 많더라고요. 아이에게 배우려고 노력한다면 겸손해질뿐만 아니라 관계도 더욱 좋아집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에는 그녀와 가족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녹아 있다. 소소한 일상도 담겨있다.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 12명이 가족이 되는 과정을 읽는 것만으로도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20170115-1132-_2012528 -90216 17. 1. 13. 8:27 Page 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나그네를 사랑하라

신명기 10:17~22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나그네들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필요한 소명을 주십니다. 한국 교회에 주셨던 많은 소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반적 소명 외에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에서 주신 소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참배에 항거하는 것이 소명이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었습니다. 시대마다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소명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주어진 한국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단순히 잘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형태와 내용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원리가 숨어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까닭은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 살아갈 때 그 시대에 필요한 소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명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선택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내가 너희와 동행하니 너희도 나만 따르고 의지하라'는 소명을 주셨고,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는 '나는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으로 살아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주어진 소명의 형태는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신명기 10장 17~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다"(신 10: 17~18).

'신의 신, 주의 주'는 히브리어로 최상급 표현입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강력하시고, 가장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이방사람과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력한 힘으로 사랑을 행하십니다. 지극히 연약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닮아 행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관심 가지시는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적 소명입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시 146:9).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대적 소명입니다.

고향을 빼앗긴 나그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세 종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첫째, 고향을 빼앗긴 나그네입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빼앗긴 이 시대의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난민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탈북민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천5백3십만 명이 분쟁, 폭력, 갈등, 박해, 전쟁, 인권유린 등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고향을 빼앗기고 탈출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모두 모아 나라를 만들면 전 세계에서 21번째로 큰 나라가 됩니다. 난민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3만4천명, 1분당 24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3만4천명이 고향을 빼앗기고 탈출하고 있습니다. 최다 난민 발생 국가는 시리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시리아 490만 명, 아프가니스탄 270만 명, 소말리아 110만 명입니다. 전 세계 난민의 54%가 이 세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나라는 터키입니다. 250만 명을 수용했습니다. 요르단, 파키스탄, 레바논 남아공, 우간다, 차드, 에티오피아 등 GDP 1.9%에 불과한 저소득 국가들이 전 세계 난민 절반 이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유한 6개국은 6% 이하를 수용했습니다. 본인들도 살기 어려운 나라들이 수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들은 고작 6% 이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난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의 소명입니다. 한 번도 만날 필요가 없고 만나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말하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불과 50~6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 전 세계 이웃들이 우리를 도와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를 도왔던 수많은 도움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6천5백3십만 명의 난민을 사랑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사역을 통해서 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요르단과 레바논에 있는 두 개의 캠프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난민캠프에서는 전도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난민들이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본국에서는 법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요르단이나 레바논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종교문제에 관대합니다. 최근에 요르단 대사를 뵌 적이 있습니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께서 요르단은 타종교에 관대하니 난민들을 수용하는 일에 교회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요르단에 캠프를 만들어놓고 사랑을 주고, 교육도 해주면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에 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온누리M미션은 우리나라의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향을 빼앗긴 수많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나그네입니다. 인권탄압과 자유를 찾아 온 탈북민들을 사랑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입니다. 국내에 있는 탈북민이 3만5천명입니다. 2001년에 1,990명이었던 탈북민이 15년 만에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탈북민들을 섬기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한터공동체, 하나공동체, 한사랑공동체 등 여러 사역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도 탈북민 사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

두 번째는 고향을 떠난 나그네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 스스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주민 혹은 이주노동자입니다. 전 세계 2억4천4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0년에 1억7천3백만 명이던 이주민이 2015년에는 2억4천4백만 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주민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2억4천4백만 명을 파송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주민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자발적으로 섞임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에 교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주현상에 선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주현상을 선교의 기회로 삼고, 전략을 수립하고, 선교적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주현상을 부정적으로, 배타적으로 반응하면 선교의 기회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유럽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에 수많은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받아줬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하고,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주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주민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언했습니다.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주민들을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럽사회와 교회가 이주현상을 선교의 기회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다면 유럽은 더욱 멋진 대륙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7개국에서 200만 명이 이주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8%가 해외이주민입니다. 2008년에는 이주민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1948년부터 60년 동안 증가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증가한 이주민이 100만 명입니다. 60년 동안 증가한 인원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00만 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300만 명의 이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심각한 배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긍지는 매우 소중하지만 그 긍지가 교만이 되고, 배타주의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적 소명을 통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온누리교회는 31년 동안 이주민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 안산에 온누리M센터를 준공했습니다. 〈13면에 계속〉

20170115-1132-_2012528 -90216 17. 1. 13. 8:27 Page 4

신년기획

온누리교회와 협력하는 13개 유관기관이 있다. 본지는 새해를 맞아 13개 유관기관 기관장들을 만나 올해 사역계획과 포부, 기도제목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온누리 영성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번 주에 만난 유관기관장은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이하 아버지학교) 이해달 장로, 두란노어머니학교(이하 어머니학교) 한은경 권사, 에젤선교회 홍정희 권사, KIBI 송만석 장로다. / 정현주, 이소정 기자

13개 유관기관장과 함께

2017년에는 이렇게

아버지학교, 한마음 한뜻으로 비전을 향하여



이해달 장로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상임이사)

아버지학교가 시작된 지 벌써 22년이 되었다. 그동안 아버지학교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정의 소중함을 전하는 소중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언어, 문화, 인종을 뛰어 넘어 타민족에게도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역으로 성장했다. 신임 아버지학교운동본부장 이해달 장로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아버지학교가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섬길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은 이해달 장로와의 일문일답.

신임 아버지학교운동본부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1997년 아버지학교를 수료했습니다. 당시 아버지학교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수료하고 나서 스태프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묵 장로님께서 아버지학교 상임이사, 대표 강사로 열심히 섬겨주셨고, 올해부터 제가 김 장로님의 뒤를 이어 아버지학교운동본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학교는 1998년 IMF를 계기로 확장되고 성장했습니다. 당시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실직하고,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가정이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아버지들은 가족들이 품어주었지만,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에 소홀한 아버지들은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정이 해체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붕괴되고 흔들리자 가정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사회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아버지학교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 사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스컴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2000년 5월 KBS '추적 60분' 이라는 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아버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아버지학교를 소개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 각종 단체와 기업, 관공서에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아버지학교가 세상 속으로 들어간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2002년부터 '열린아버지학교' 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66개국(19개국은 현지인 아버지학교)에서 33만 1천명의 아버지들이 아버지학교를 수료했습니다."

아버지학교의 주요 사역이 무엇입니까.

"올해부터 교도소와 군부대에서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아버지학교가 진행됩니다. 아버지학교가 군대와 교도소에서 실시되는 인성교육의 필수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 대다수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군대에 입대한 청년들의 30% 정도가 결손가정이라고 합니다. 예비 아버지들인 그들에게 결혼과 가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꿈을 심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아버지학교는 땅 끝까지 갈 것입니다. 국내 아버지학교 지부들과 해외 아버지학교 지부들을 결연시켜 해외에서 아버지학교를 더 많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버지학교의 올해 표어는 '한마음 한뜻으로 비전을 향하여' 입니다.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정말 좋은 아버지, 이웃에게 따뜻한 아버지, 사회와 국가에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버지학교 모든 스태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치고, 비전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학교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삶을 돌아보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정은 인생의 '베이스캠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가정의 숫자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더 많아지도록 더 많은 분들이 아버지학교를 수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학교는 실천운동입니다.

실천운동은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소멸됩니다. 아버지학교가 성령, 연합, 실천운동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학교 모든 스태프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사회, 세대, 문화의 벽을 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버지학교가 되겠습니다."

어머니학교, "건강한 여성이 건강한 가정, 교회, 열국을"

어머니학교는 1999년 시작되었다.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남편들의 요구가 그 시작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 급성장했지만 도덕률이 떨어지고, 교회 성도가 줄기 시작했다. 당시 하용조 목사는 그 원인을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찾았다.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된 사역이 아버지학교다.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아버지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배운 것을 적용해봤더니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내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그것이 어머니학교의 모태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3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어머니학교를 수료했다. 1년에 100회가 넘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언어, 문화, 종교는 다르지만 어머니학교가 가정의 문제를 해소하고, 가정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은 동일하다. 다음은 어머니학교본부장 한은경 권사와의 일문일답.

올해 어머니학교의 주요사역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어머니들이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와 같은 청소년 사역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가능한 많이 응할 예정입니다. 가족 캠프 등과 같은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위한 사역자 양성에도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탈북자 가정 회복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탈북자들에게 성경적인 가정상, 바람직한 어머니의 존재와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그들이 한국 사회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처럼 돌이키고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성장하고, 더 멋있는 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어머니가 된 것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초월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여, 기뻐하십시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상황에 굴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온누리교회 모든 여성들이 어머니학교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도 참가하기를 권합니다. 모든 여성은 마리아입니다. 건강한 여성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열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장)

20170115-1132-_2012528 -90216 17. 1. 13. 8:27 Page 5

사)법인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DURANNO FATHER SCHOOL Family Builders
사단법인 더생명나무 두란노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 어머니학교 Mother School Mission Center
EZER Community Fellowship
KIBI 한이성경연구소

소망하고, 꿈꾸고, 달려간다!

에젤선교회, 선교사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홍정희 권사
(에젤선교회 대표)

에젤선교회(EZER Community Fellowship)는 선교사들의 친구이자 동역자이다. 선교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1995년에 세워져 사역을 시작한지 올해로 22년 됐다. 하용조 목사가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중보기도자를 찾은 것이 그 시초다. 에젤선교회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60개 이상의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380여 명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다.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다음은 에젤선교회 대표 홍정희 권사와의 일문일답.

에젤선교회의 올해 계획이 무엇입니까

"올해 에젤선교회는 더 많은 지역을 돌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며 선교사님들을 섬겼습니다. 올해는 콜롬비아의 도시 보고타와 메디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보고타에서는 한인교회 두 곳, 메디진에서는 신학교 두 곳을 방문해서 내적치유 세미나 등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중동에 있는 한인교회와 다민족교회가 연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도 준비 중입니다. 한인교회가 다민족교회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금 중동에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도가 절실한 곳입니다. 이외에도 터키에서 말씀 세미나도 계획 중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더욱 깊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기도후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매주 한 번씩 각처에서 소그룹으로 선교사님들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사역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영적 양식인 말씀을 공급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공부 교재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에젤선교회는 2013년부터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레위기〉, 〈마태복음〉, 〈거룩한 전쟁〉,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성경공부 교재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선교사들이 고갈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부분의 책자는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번역되었고 영어, 터키어, 인도네시아어로도 번역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선물과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매년 생일카드와 어린이날, 추석, 성탄절에 선교사 가정에 손수 제작한 선물과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말씀을 통한 내적치유 세미나입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이 말씀으로 거룩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재정후원입니다. 에젤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들 일부에게 매월 100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장애인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돌이키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온누리교회만큼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드뭅니다. 과거에 비해 요즘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선교와 선교지에 대해 지식이 많아지니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추울 때 따뜻한 안방의 아랫목이 되어주는 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에젤선교회에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며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선교사님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KIBI, 유대인들을 위로하라!

KIBI(Korea Israel Bible Institute)는 한국 · 이스라엘 성경연구소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사역을 30여 년 동안 해오고 있다. 온누리교회와 함께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IBI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기도모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자모실이나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조별로 돌아가며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어지는 기도모임도 있다. 다음은 KIBI 대표 송만석 장로와의 일문일답.

이스라엘 선교를 왜 해야 합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재림과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타고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해야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땅 끝 선교를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복은 지난 2천 년 동안 비밀이었습니다. 2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서 쫓겨났고 2천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왔습니다. KIBI 사역은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돕고 고향에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환영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KIBI의 중점 사역은 무엇입니까?

"먼저 유태인 귀환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태인들을 돌아오도록 돕는 'Jewish Agency'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돌아가지 못하는 유태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KIBI는 유태인들이 2천 년 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도록 하는 일에도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유태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직접 방문하여 회개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샬롬 예루살렘' 대회가 있습니다. 2017년은 예루살렘이 회복 된지 50년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희년입니다. 금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2017 샬롬 예루살렘' 대회를 개최합니다. 5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준비한 공연을 합니다. 또한 지난 2천 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였던 일들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KIBI는 이스라엘 회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년 4번씩 7주 동안 'KIBI 이스라엘 성경공부(IBS)' 과정을 개설합니다. 기도사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두 팀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 성경공부(IBS: Israel Bible Study)는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공부입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배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2017 샬롬 예루살렘' 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주시고 재정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만석 장로
(KIBI 대표)

20170115-1132-_2012528 -90216 17. 1. 13. 8:27 P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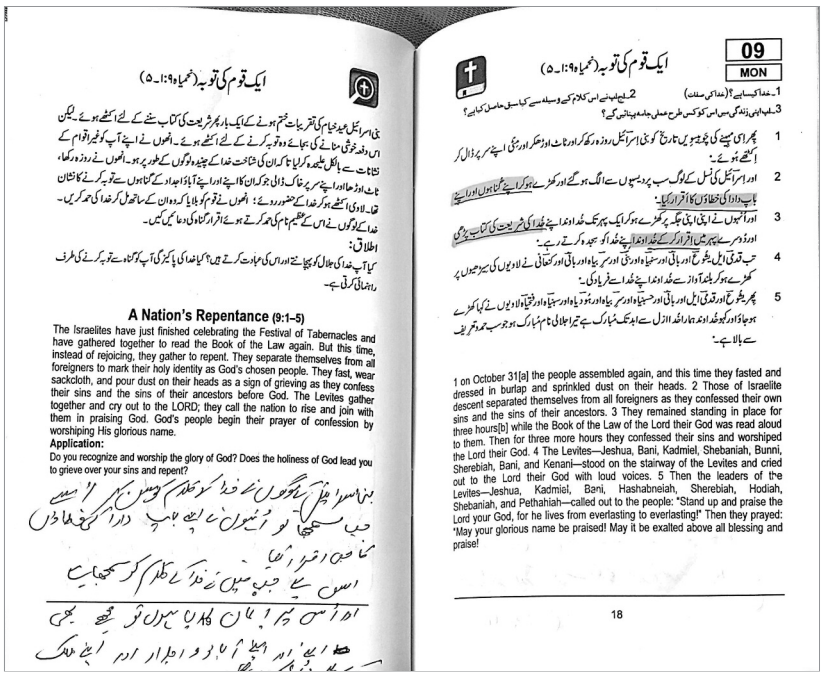
〈생명의 삶〉 창간 30주년

〈생명의 삶〉은 세계 90여 개국에서 '큐티로 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이 작은 큐티책으로 풍성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있다. 한글판 기준으로는 78개국에 있는 한인 크리스천 독자들이 〈생명의 삶〉을 정기구독하고 있다. 한인뿐만이 아니다. 〈생명의 삶〉은 8개 외국어로 번역 출간되고 있다. 다른 나라 크리스천들에게도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있다. 전 세계 〈생명의 삶〉 독자들의 간증을 모았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생명의 삶〉

세계 90여 개국에서 '큐티로 여는 하나님 나라'



ایک قوم کی توبہ (نحمیاہ ۹:۱-۵)

بنی اسرائیل عید خیام کی تقریبات ختم ہونے کے ایک بار پھر شریعت کی کتاب سننے کے لئے اکٹھے ہوئے۔ لیکن اس دفعہ خوشی منانے کی بجائے وہ توبہ کرنے کے لئے اکٹھے ہوئے۔ انھوں نے اپنے آپ کو غیر اقوام کے نشانات سے بالکل علیحدہ کر لیا تا کہ ان کی شناخت خدا کے چنیدہ لوگوں کے طور پر ہو۔ انھوں نے روزہ رکھا، ٹاٹ اوڑھا اور اپنے سر پر خاک ڈالی جو کہ ان کا اپنے اور اپنے آباؤ اجداد کے گناہوں سے توبہ کرنے کا نشان تھا۔ لاوی اکٹھے ہو کر خدا کے حضور روئے؛ انھوں نے قوم کو بلایا کہ وہ ان کے ساتھ مل کر خدا کی حمد کریں۔ خدا کے لوگوں نے اس کے عظیم نام کی حمد کرتے ہوئے اقرار گناہ کی دعا میں کیں۔

اطلاق:

کیا آپ خدا کی جلال کو پہچانتے اور اس کی عبادت کرتے ہیں؟ کیا خدا کی پاکیزگی آپ کو گناہ سے توبہ کرنے کی طرف راہنمائی کرتی ہے۔

A Nation's Repentance (9:1-5)

The Israelites have just finished celebrating the Festival of Tabernacles and have gathered together to read the Book of the Law again. But this time, instead of rejoicing, they gather to repent. They separate themselves from all foreigners to mark their holy identity as God's chosen people. They fast, wear sackcloth, and pour dust on their heads as a sign of grieving as they confess their sins and the sins of their ancestors before God. The Levites gather together and cry out to the LORD; they call the nation to rise and join with them in praising God. God's people begin their prayer of confession by worshiping His glorious name.

Application:

Do you recognize and worship the glory of God? Does the holiness of God lead you to grieve over your sins and repent?

09 MON

ایک قوم کی توبہ (نحمیاہ ۹:۱-۵)

1۔ خدا کو کیسا ہونا ہے؟ (خدا کی صفات) 2۔ لیوی انہیں اس کلام کے کیسے وسیلہ سے کیا سننا حاصل کرنا ہے؟
3۔ اب انہی زندگی میں اس کو کس طرح عملی جامہ پہنانا ہے کیسے؟

1 پھر اسی مہینے کی چوبیسویں تاریخ کو بنی اسرائیل روزہ رکھ کر اور ٹاٹ اوڑھ کر اور مٹی اپنے سر پر ڈال کر اکٹھے ہوئے۔

2 اور اسرائیل کی نسل کے لوگ سب پردیسیوں سے الگ ہو گئے اور کھڑے ہو کر اپنے گناہوں اور اپنے باپ دادا کی خطاؤں کا اقرار کی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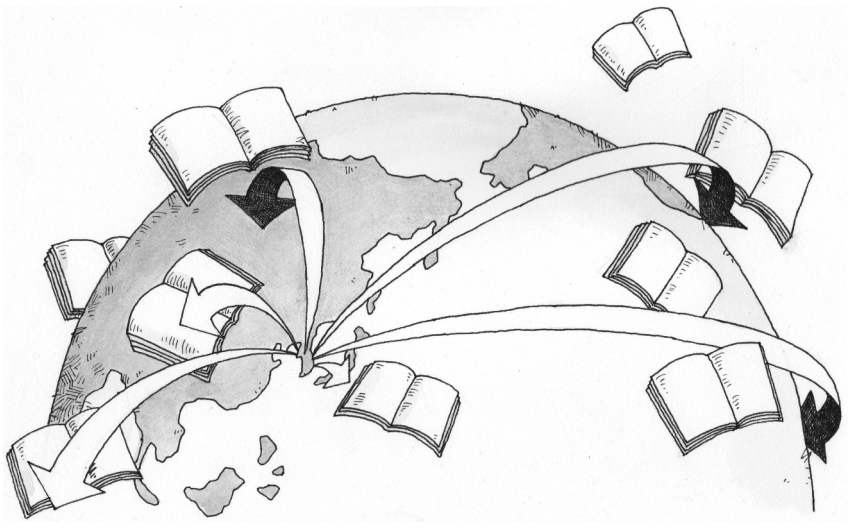
3 اور انہوں نے اپنی اپنی جگہ پر کھڑے ہو کر ایک پہر تک خداوند اپنے خدا کی شریعت کی کتاب پڑھی اور دوسرے پہر میں اقرار کر کے خداوند اپنے خدا کو سجدہ کرتے رہے۔

4 تب قدمی ایل، بنوح اور بانی اور سحیاہ اور بانی اور سحیاہ اور بنی اور سرکیاہ اور بانی اور کنعانی نے لاویوں کی سیڑھیوں پر کھڑے ہو کر بلند آواز سے خداوند اپنے خدا سے فریاد کی۔

5 پھر یشوع اور قدمی ایل اور بانی اور حسنیاہ اور سرکیاہ اور ہودیاہ اور سبنیاہ اور فتحیاہ لاویوں نے کہا کھڑے ہو جاؤ اور کہو خداوند اور ہمارا خدا ازل سے ابد تک مبارک ہے تیرا جلالی نام مبارک ہو جو سب حمد و تعریف سے بالا ہے۔

1 on October 31[a] the people assembled again, and this time they fasted and dressed in burlap and sprinkled dust on their heads. 2 Those of Israelite descent separated themselves from all foreigners as they confessed their own sins and the sins of their ancestors. 3 They remained standing in place for three hours[b] while the Book of the Law of the Lord their God was read aloud to them. Then for three more hours they confessed their sins and worshiped the Lord their God. 4 The Levites—Jeshua, Bani, Kadmiel, Shebaniah, Bunni, Sherebiah, Bani, and Kenani—stood on the stairway of the Levites and cried out to the Lord their God with loud voices. 5 Then the leaders of the Levites—Jeshua, Kadmiel, Bani, Hashabneiah, Sherebiah, Hodiah, Shebaniah, and Pethahiah—called out to the people: "Stand up and praise the Lord your God, for he lives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Then they prayed: "May your glorious name be praised! May it be exalted above all blessing and praise!

18



◀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Y형제(파키스탄인)가 느헤미야 9장 1~5절 본문으로 큐티한 내용.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일들이 있기를 기도해본다.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절실하다. 아침마다 이 땅의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가족들과 함께 5년 동안 밴쿠버에서 살다가 직장 관계로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만 홀로 캐나다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지내게 되었다. 처음으로 가족들과 떨어졌다. 기러기 아빠가 됐다. 어느 날 퇴근길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다. 나도 모르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기도하려고 예배당에 앉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다음날 〈생명의 삶〉 정기구독을 신청했다. 당시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이었다. 풍랑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 이곳에서의 삶이 거대한 풍랑 같고, 광야 같을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고독한 시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한순간도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 조세연(캐나다 앨버타)

일본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기적

4년 전 아내가 〈리빙구 라이후〉(〈생명의 삶〉 일본어판)를 소개해줬다. 책도 두껍고, 돈을 주고 사야했다. 내용도 깊이 있어 보여 부담이 됐다. "시간 내서 하기 어려울 것 같아. 매일 하기 어렵겠지. 오래 가지 않을 거야…"

포기하려는 마음이 앞섰다. 그때마다 아내는 내게 열심히 큐티할 것을 권유했다. 돕는 아내 덕분에 〈리빙구 라이후〉를 이용해서 큐티를 시작했다. 직면한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경험을 하게 됐다.

나는 수면무호흡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몹시 힘들었다. 중증이었고 졸음에 시달렸다. 치료를 해도 예배시간에 쏟아지는 졸음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런 내게 기적이 일어났다. 예배 중에 더 이상 졸리지 않게 되었다. 매일 아침 큐티로 하나님을 만날 때와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다. 하나님이 나의 약한 곳을 긍휼과 은혜로 덮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와 기적이었다.

/ 미야노하라 히로시(일본 기후현)

미국

오늘보다 나은 내일!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하고 이민 생활을 시작했다. 낯선 환경에서 보낸 5년은 정말 힘들었다. 출산과 육아, 언어, 문화, 관계, 재정 문제 등으로 우울증과 공황 장애를 앓았다. 결혼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었는데 바쁜 남편 대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다보니 예전 같은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주일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갈되었다.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곳이 없었다.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다 살고 싶어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시작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차 내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 갔다. 문화 차이와 교회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편과도 함께 큐티하면서 간극을 메워나갔다.

큐티를 통해 내 모습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소망하고 있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강현정(미국 조지아)

독일

나의 신앙고백의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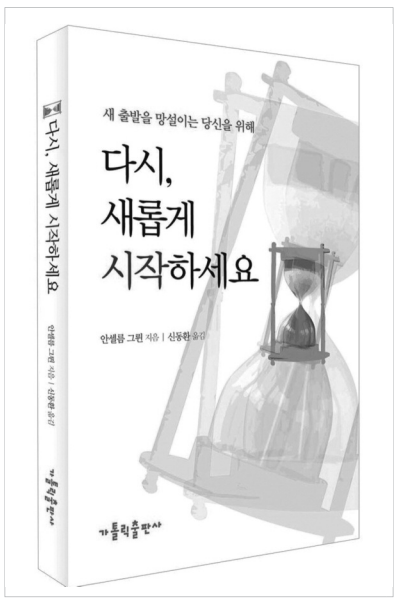
큐티를 처음 접한 것은 뮌헨으로 이사를 온 2007년이다. 교회 집사님이 〈생명의 삶〉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 '무슨 책일까?' 궁금했다. 때마침 큐티 나눔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영적 성장의 갈급함을 느끼던 터였기에 망설이지 않고 큐티 나눔방에 합류했다. 매일 큐티를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가 아프거나 남편이 바쁘거나 지독히 흐린 날씨로 내 감정이 한없이 떨어지면 말씀을 건너뛰기 일쑤였다. 말씀 묵상이 일상이 되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의 약함을 나누게 하셨다. 나의 슬픔과 기쁨을 솔직하게 나누는 과정이 나의 신앙고백의 원천이 되었다.

뮌헨한인교회의 여인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신앙이 자라기를 기도한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굳건히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 구봉진(독일 뮌헨한인교회)

20170115-1132-_2012528 -90216 17. 1. 13. 8:27 Page 7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다시, 새롭게 시작하세요〉
안셀름 그륀 저 | 가톨릭출판사 | 8,000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2017년 온누리교회 방향이다. 우리는 이 주제를 붙잡고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다. 돌이켜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을 위하여 기도에 매진하고 있다.

돌이키고 회개한 성도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꾸 망설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했는데 잘 안되면 어떡하지라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다. 너무 멀리 돌아왔는데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 새 출발을 망설이기도 한다.

망설이고 있는 이들에게 안셀름 그륀의 〈다시, 새롭게 시작하세요〉라는 책을 권하고 싶다. 새 출발을 주저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책이다. 이 책은 '시작하다'라는 주제에 대해 각 나라별 언어에 함축되어 있는 경험과 성경 말씀을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책이나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묵상집이다.

'언제든 새롭게 시작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이 시작할 때입니다'라는 글로 마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안셀름 그륀은 그리스도인의 '새것, 새로움'의 개념을 '네오스'와 '카이오스'로 설명하고 있다. 네오스는 처음 시도하는 것,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새로움을 뜻한다. 카이오스는 옛것보다 뛰어난 새것을 의미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신 스마트폰과 같은 개념이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과 우리 내면을 새롭게 바꾸고 싶은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작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한 가지는 마음속에 이미 새로움이 있다는 사실이다. 매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음속에서 새로운 것을 일깨워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매순간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새로운 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시작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시작한다는 말은 삶에 대해 늘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새로운 시작이고 부활도 죽음에서 승리한 새로운 시작이며,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도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용서로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요 1:1).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첫 말씀을 심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말씀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첫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첫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한 우리의 시작이다.

'오늘은 내가 누울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하자'라고 생각해보자.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모든 일을 단번에 해치울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결정했다면 시작해야 한다. 일단 일이 시작되면 우리 앞에 서 있는 큰 산이 나날이 작아질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이 참 많다. 새 학년, 새 학기, 새 직장 등 새로운 만남과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있다. 과거의 것을 돌이켜 새로운 것을 향해 새 출발을 시도하는 것이다. 혹여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했다가 중단하였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의미를 주는 이 책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새롭게 도전하기를 소망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사 43:18~19).



김현실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새벽에 들으면 더 좋은 찬양 3

아버지의 노래(The Father's Song)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 속에
새겨져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2000년에 처음으로 외국 찬양을 접했다. 당시 누군가 외국의 유명 예배자 몇 명을 소개해 줬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자가 매트 레드맨(Matt Redman)이었다. 그는 유난히 한국인들의 감성을 울리는 멜로디의 곡을 만드는 사람이다. 물론 찬양이 멜로디가 좋다고 해서 잘 불리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는 멜로디뿐만 아니라 그 멜로디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가사를 쓰는 싱어송라이터다.

오늘 소개하는 찬양은 2000년 6월 그의 다섯 번째 앨범 'The Father's Song'의 타이틀곡이다. 이 찬양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귓가에 들려주는 사랑의 속삭임처럼 느껴진다. 아가서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사랑 고백이 주는 잔잔한 감동을 이 노래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소용돌이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수많은 방법을 모색한다. 그때 우리는 넘어졌고 주저앉았다. 우리의 영혼을 노예로 만들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저지른 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변함없이 주신다는 그 메시지 말이다. 어떤 것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The Father's Song을 부른 매트 레드맨(Matt Redman).

이 곡을 부르고 들으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 아낌없이 주는 마음, 끝까지 좋은 것으로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라. 찬양을 들어도 눈물이, 입으로 소리 내어 불러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

2013년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아웃리치팀이 노방 찬양을 하던 때였다. 이스라엘의 철없는 청년들이 우리가 찬양을 할 때면 기이한 춤을 추면서 방해를 했다. 아웃리치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급한 마음에 다른 팀원들을 불러 모아서 기도를 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영혼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아웃리치팀이 조용한 찬양을 부르며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와 뱃소리 때문에 찬양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 정도로 조용히 불렀다. 눈을 감고 찬양하면서 2분여 쯤 지났을 때 하늘에서 천상의 멜로디가 들려왔다. 하나님이 우리 팀원들을 둘러싸셔서 호위하는 느낌이 들었다. 점점 화음이 만들어졌다. 게다가 여러 나라 말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관광객들이 우리팀 주변으로 겹겹이 진을 치고 같이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었다. 그때 들었던 그 소리, 하늘의 그 신비로운 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나는 그 소리가 바로 아버지의 노래(The Father's Song)라고 믿는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노래를 날마다 듣고, 반응하고, 고백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원진 목사
(수원 온누리교회)

20170115-1132-_2012528 -90216 17. 1. 13. 8:27 Page 8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1월 6일 Fri 금요일

하나님의 부르심

에스겔 2:1~10
이기원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에스겔 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서있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호흡할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사명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령이 임하자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을 순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역을 잘 하느냐보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듣던지 듣지 않던지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예언자가 있음을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에게 '우리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 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을 사랑의 자리로도 보내십니다. 사랑으로 그 사명을 묵묵히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맺었는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을 고난의 자리로도 보내십니다. 에스겔을 찔레와 가시와 전갈들 한 가운데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있는 한복판에서도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가시와 찔레, 전갈을 지나온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삶속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고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찔레이고, 가시이고, 전갈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온전히 있는 것이 부르심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월 7일 Sat 토요일

은혜로 돌이키라

로마서 5:6~8
이기복 목사

우리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뜻밖의 복을 주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스스로의 죄를 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절망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정과 나라에 숨어 있는 죄를 적당히 덮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종교로 덮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겸손과 함께 갑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교만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있는 종교인 곧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난 혼란스러운 일들은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보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죽습니다. 그 누구보다 회개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낮은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다면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겸손한 자는 명예와 생명과 존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가장 최고의 기도응답 비결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제목을 붙잡고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크게 겸비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네가 크게 겸비한 그 순간부터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기도로 천사가 우리나라에 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땅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월 9일 Mon 월요일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훔 1:1~9
이재훈 목사

나훔서 1장은 니느웨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실까요.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교훈을 주실 때에도 당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을 "살라 버리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질투를 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사울이 다윗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도 모두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무서운 악함이 숨어있는 질투라는 표현으로 성품을 설명하셨을까요. 질투라는 단어는 다른 한편으로 '열정, 열심'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열정적인 하나님' 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질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단어밖에는 적합한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로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분노도 없습니다. 소유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 불살라 버릴 듯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질투로 변하면 하나님의 복수, 진노,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투가 쏟아지기 전에 선하심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나 1:7)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피할 수 있는데 멸망될 곳으로 도망가니 질투가 불같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살 길이 있는데 죽을 길로 가니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약 4:5).

하나님은 왜 시기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다른 데 팔려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를 깨닫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동일한 질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렵혀지는 것에 대한 거룩한 질투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질투가 생기고, 그 질투가 열정이 됩니다. 성령의 시기심을 느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됩니다.

멸망당한 니느웨를 반면교사 삼아 돌이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20170115-1132-_2012528 -90216 17. 1. 13. 8:27 Page 9

1월 10일 Tue 화요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박국 3:16~19
이재훈 목사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의심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 분노하고 항의했습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도 불의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불의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다른 의가 있습니다. 심판 속에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재앙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의롭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으로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이 불의로 넘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을 길을 예비하시고, 재앙을 내리시지만 더디게 내리십니다.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처분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면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의심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확신했습니다. 분노로 시작했지만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의심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있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에게만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를 경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박국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심판 가운데서도 의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1월 11일 Wed 수요일

너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스바냐 3:14~20
이재훈 목사

창세기에 타락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타락하고 노아의 홍수라는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류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역사를 심판하시고 또 다른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역사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역사를 끝내지 않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새로운 타락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예언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심판과 동시에 그 시대에 임할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스스로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행동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최후 심판에서도 남은 자들을 두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을 축복하시는 노래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를 끌어안고 기뻐하시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은 부모처럼 기뻐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지옥 같습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맛이 있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팬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지만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남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랑노래를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노래를 듣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르시는 노래를 듣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의 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1월 12일 Thu 목요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개 2:1~9
이재훈 목사

학개 선지자의 사명은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만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인 성전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위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삶을 되돌아보라. 성전 재건은 방치하고 자기의 집을 치장하는데 몰두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내어라"고 격려했습니다. 왜 격려가 필요합니까. 성전 재건이 방치된 이유 중에는 백성들의 내적인 요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실망, 좌절,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어봐야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가 될까라는 열등감과 절망에 빠져 성전 재건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외형적인 화려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주시는 성전의 영광은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할 영광입니다. "용기를 내어라"는 격려는 용기내서 더 잘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관점을 달리해서 새로운 성전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성전 재건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광은 만물을 뒤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국을 뒤흔드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운 멋진 예배당도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민족의 보화가 돌아오는 성전의 영광도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모든 열방이 만국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 재건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만물이 뒤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모든 민족이 주께로 나오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의 초라한 예배당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선교사 두세 명이 모여 예배해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선교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20170115-1132-_2012528 -90216 17. 1. 13. 8:27 Page 10



국내10개 캠퍼스와 일본어 예배를 섬기는 청년리더십들이 더원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있다.

청년 리더십컨퍼런스 '더원(The One)' 개최

10개 캠퍼스, 일본어예배 등 청년 1,000명 참석

청년 리더십컨퍼런스 '더원(The One)'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10개 캠퍼스와 일본어예배를 섬기는 청년 리더십 1,000명이 참석했다. 이재훈 담임목사,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본부장), 조준목 목사(길공동체), 이서진 목사(CH630공동체), 천정우 전도사(회복사역)가 강의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세상을 놀라게 하라'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 목사는 청년들에게 "매일 예수님으로 인해 놀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권면했다.

이상준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목사는 '한 영혼을 품으라', 조준목 목사는 '이기는 교회', 이서진 목사는 '내 양을 먹이라', 천정우 전도사(회복사역)는 '몸이 기억하는 마음의 고통'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J4U공동체 임현수 사역MC는 "어떤 사역이든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섬기기를 소망한다"고 했고, 갈렙공동체 김사라 순장은 "순원들을 하나님의 걸작으로 여기며 품겠다"고 다짐했다. W공동체 이은혜 새가족MC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리더십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부 리더십컨퍼런스는 매년 개최된다. 순장, 부순장, 사역팀장을 포함한 청년부 리더십들이 대상이다.

한편 대학부 리더십컨퍼런스 '고(Go)'는 13일(금)부터 오늘(15일)까지 강화성산 예수마을에서 진행 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지리산선교동지회 차세대 55명 서울탐방

온누리교회, 삼성SIM, 남산, 롯데월드 등 방문

지리산선교동지회 소속 8개 교회(초원교회, 고읍교회, 광월교회, 마천교회, 청현교회, 화강교회, 함께하는교회, 부곡교회) 차세대 55명이 서울탐방을 했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회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지리산선교동지회 소속 8개 교회 차세대 55명을 초청한 것. 2박3일 동안 온누리교회, 삼성SIM, 남산, 롯데월드, 국립중앙박물관 등지를 방문했다. 주일에는 온누리교회 차세대 예배와 성인예배를 드렸다.

김동수 형제(초원교회)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큰 환영을 받았다"면서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고, 노태곤 목사(고읍교회)는 "이번 탐방이 지리산에 사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신앙의 지경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샘물중고등학교 신입생 추가모집

2월 2일까지 원서접수

학생을 가정, 교회, 학교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있는 샘물중고등학교에서 신입생과 편입생을 추가 모집한다. 2월 2일 오후 5시까지 원서를 접수받는다. 입학서류는 홈페이지(www.smca.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예비 중학생, 중1~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상이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일반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중등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입학간담회는 1월 21일 오전 10시 샘물중고등학교에서 열린다.

문의: 032-714-7091

이웃 섬기는 '선교재단'

화성 동부자립생활지원센터 봉사활동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지난 11일 온누리선교재단 강상순 부장 외 직원 4명이 화성 동부자립생활지원센터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화성 동부자립생활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자활지원센터다. 70여 명의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은 화성동부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재발생시 대응요령에 대한 강의를 했다. 분말소화기 8개, 투척형소화기 8개를 기증했다.

'버킷리스트' 결신자 13명 세례

지난 8일 서빙고 본당 여성민 목사 집례

지난 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맞춤전도집회 '버킷리스트'의 열매가 맺혔다. 결신자 13명이 세례를 받은 것. 12명이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고, 1명은 병상세례를 받았다. 여성민 목사가(전도본부장) 집례 했다.

이번에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지난해 11월 50대 동기동창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버킷리스트'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결신자들이다. 맞춤전도집회 '버킷리스트'에서는 81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115명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었다. 다음 세례식은 1월 29일이나 2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세례를 받은 김완석 성도는 "나를 위해 기도해준 친구와 온누리교회 가족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트비전 전시회 동안교회 로뎀갤러리

오는 2월 4일까지

온누리교회 미술인선교회 아트비전이 '하나님을 꿈꾸는 그림큐티'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동안교회 로뎀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아트비전 소속 작가들이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아트비전은 예술문화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문의: 010-4876-2354

"나눔장터에 물품 기증해주세요"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식당 뒤편

나누는 즐거움과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나눔장터에서 물품을 기증받고 있다. 서빙고 나눔장터는 성도들이 기증한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이다. 물건 판매 수익금 전액을 사회선교에 사용하고 있다.

나눔장터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기증받는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식당 뒤편에 있는 나눔장터 회수함에 물품을 가져다 넣으면 된다.

문의: 010-8752-2222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017 샬롬 예루살렘 참가자 모집

KIBI에서 '2017 샬롬 예루살렘' 참가자를 모집한다. 샬롬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아온 유태인들을 위로하는 사역이다.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IBS수료자나 수료예정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kibi.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송만석 장로(KIBI 대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인 샬롬 예루살렘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문의: 02-792-7075, 02-792-7076

20170115-1132-_2012528 -90216 17. 1. 13. 8:27 Page 11

▌세례간증



행복전도사에서 예수전도사로!

/ 홍범식 성도(고양은평공동체)

위로 누님 두 명과 밑에 여동생이 있다. 모두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우리집에서 나만 끈질긴 전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다.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하나의 신화로 생각하면서 믿기를 거부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기독교인들의 실망스런 행동을 보면서 믿기를 거부했다. 몇 년 전에는 누나의 간곡한 부탁으로 2년 정도 교회를 다녔다. 계속되는 출장으로 자연스럽게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없게 되면서 그마저도 발길을 끊었다. 그러던 중에 로마에서 카타콤베(로마 기독교인들의 지하 공동묘지이자 피신처)를 투어하게 되었다. 그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왜 하나님을 섬기려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예수님이 신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마침 여자친구가 온누리교회 예배에 나를 초대했다. 신기하게 아무런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에 망설임 없이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시작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잘 마쳤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더니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차들이 끼어들려고 하면 양보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늘 스스로를 행복전도사라고 지칭하면서 남들에게 행복을 전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예수전도사가 되고 싶다. 진정한 행복의 전제조건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것임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행복도 함께 전하고 싶다.

내가 운영하려는 가게 상호도 바꾸었다. '행복을 나누는 가게'에서 '주님과 행복을 전하는 가게'로 말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서 주님과 행복을 전한다면 이것보다 가치있고 보람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지금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의 마음 가득 하나님이 계시고, 감사와 행복이 넘쳐서 불평과 불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도 없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앞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특별한초대 '해피Bus데이' 프로젝트



더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 심정언 성도(특별한초대)

더 이상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지 않는 나이가 되었어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기대하게 된다. 막상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가족들과 휴가계획을 세웠었다. 크리스마스 당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었다.

지난해 12월, 열린새신자예배에서 '내 마음의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예배를 드리면서 부끄러워졌다. 어떤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다. 그때 '해피Bus데이'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서빙고 온누리교회 앞을 지나가는 버스 기사님들께 작은 선물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행사였다. 크리스마스에 감사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기다리는 초등학생 딸에게 더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자고 설득했다. 휴가 계획을 취소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졌다.

크리스마스이브 저녁. 서빙고 온누리교회 앞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모였다. 가족과 함께 참여한 사람, 연인과 함께한 사람 등 뜻깊은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버스 기사님들께 드릴 선물을 포장하고, 정성스럽게 카드도 썼다. 수고한다며 우리를 위해 음식을 가져오신 분도 있었다.

삭막했던 버스 정류장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예쁜 정류장으로 변신했다. 길거리에서 듣기 어려워진 크리스마스 캐럴도 울려 퍼졌다. 그 버스 정류장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곳으로 변신했다. 이처럼 설레며 버스를 기다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멀리서 버스 머리만 보여도 저절로 웃음이 나고 행복해졌다.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몰랐었다. 작은 선물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화답해 주시는 버스 기사님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밤새 선물을 돌리는 산타 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다.

남을 위로하는 것은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고, 남을 격려하는 것이 자기를 격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해피Bus데이' 프로젝트를 통해 내가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산타가 되어줄 수 있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내가 경험한 기쁨

/ 계문순 성도(중종로공동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지상명령을 무시한 채 안일하게 살았다. 나의 신앙생활만 했던 그동안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전도폭발훈련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동안 전도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부족함을 느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전도를 배우고 싶었다. 전도폭발훈련은 숙제가 많아서 부담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말씀을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행복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경험한 기쁨을 나누고 싶다.

먼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전도대상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전도대상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죄의 정의를 암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았다. 그동안 지었던 죄, 부모님께 불효했던 죄, 남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죄, 마음속에 스쳐갔던 죄들을 낱낱이 회개할 수 있어 기뻤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한다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기뻤다.

죄를 기록한 책의 예화를 암기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 값을 다 갚아 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감사했다. 예수님을 100% 신뢰하지 못 하고 내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려 했던 죄를 회개했다. 부족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도 감사했다.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받은 가장 큰 기쁨은 나에게도 전도대상자들에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아직은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렵지만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매주 섬겨주신 스태프님들, 그룹장님, 우리 F조 조원님들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전도사님께 감사드린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

▌일.하.세.아카데미 수료 간증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 이석원 성도(강서공동체)

다니던 직장이 M&A 되면서 회사 사정이 불투명해졌다. 더 이상 있을 곳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들어 호기롭게 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50대 중반의 퇴직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를 몸소 체험했다. 나와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 경쟁도 치열했다. '아무 일이라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이라고 생각할 즈음 지금의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아파트 관리소장 일이다.

나는 초보 관리소장이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해결할 수 없었다. 일에 적응해 갈 즈음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임금을 덜 주려고 명목상 휴게시간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약간의 보수 차이에도 흔들려서 이직하는 직원들을 보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비관적이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그들에게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싶었다. 그때 '일.하.세.아카데미'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임을 알게 되었다. 손으로 하는 일이든, 머리로 하는 일이든, 육체노동이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증표이다. 존귀한 것이다. 유교 문화에 뿌리 깊게 박혀 내려오는 사농공상(士農工商) 구분처럼, 일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이 이웃을 유익하게 한다면 더욱 가치 있고 유용하다. 주일에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최저임금을 받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터임을 고백한다. 누군가는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능숙하게 이 일을 함으로써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편해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직원들을 격려할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실천함으로써 동료들에게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는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20170115-1132-_2012528 -90216 17. 1. 13. 8:27 Page 12

장로칼럼

죄에 대한 나의 묵상



정대서 장로
(푸른누리 공동체)

내가 생각하는 죄는 사랑받는 피조물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중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되 불순종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반항하는 행동도 죄다.

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전에 자기 방식을 주장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 그들은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만 그 기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한다고 착각한다.

본질적으로 죄인들의 소견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만을 구한다.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주장과 필요를 채워달라고 손만 벌린다. 이 모든 오류는 인간은 본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잊어버린 것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하나님이 다른 만물보다 특별하게 사랑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훌륭해서 그 능력을 가졌다고 착각한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친밀하게 소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죄에 빠지면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지르기 쉽고,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우리가 돌이킬 길을 열어 주셨다.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은 창조주이지만 피조물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분은 죄인들과 달리 본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을 살아내셨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행하셨다.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지 않으셨다. 하늘에 계실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사랑하면서 온전한 하나 됨을 유지하셨다. 스스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새벽 미명부터 밤늦게까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셨다. 예수님의 몸, 마음,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됨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자기 소견을 갖지 않을 수 있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 몸을 내어주실 수 있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소명을 완수하셨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게 됐다. 자기주장만 가득한 이 시대,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좇아 행하기를 선택해야 한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을 이뤄내야 한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해질 것이다. 연약한 자들을 들어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권사칼럼

두 가지 축복



문혜란 권사
(특별한초대공동체)

14년 전까지만 해도 참 열심히 살고 있었다. 착하고 성실한 공직자의 아내로, 소위 잘나가는 학원장으로, 예쁜 외동딸을 키우며 말이다. 그런데 2003년 여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다. 내가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그때부터 긴 병원생활이 시작되었다. 세 번에 걸친 큰 수술과 항암치료를 30여 번이나 받았다. 그런데도 고통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암이 재발하였고 간염까지 겹쳤다. 주치의는 일주일 안에 간성혼수가 올 것이고 사망할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치유해주셨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하게 징벌하긴 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습니다"(시 118:17~18).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었다. 의사가 사망한다고 해도 겁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엄청난 질병을 통해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했다. 공감대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병원은 그야말로 전도의 황금어장이었다. 나는 병원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전도하면 병원사역팀에 연락했다. 그러면 팀장님과 목사님이 화관과 성찬을 준비해 오셔서 병상세례를 주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졌다. 그때 세례를 받은 10여 명이 1년이 안되어 모두 천국으로 떠났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도 고난은 축복이었다. 종교인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인으로 삶이 바뀌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었다.

두 번째 축복도 이어졌다. 바로 소망교도소로의 부르심이다. 우리는 이곳을 '소망동산'이라고 부른다.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재소자들에게 '일대이 제자양육'을 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소망교도소에서는 '일대이 제자양육'이라고 부른다. 대강당에서 푸른 단체복을 입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형제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곳에 내 마음도 있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걱정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이곳에 있는 것 같아 미안해졌다. 슬픈 감정이나 연민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했다. 나의 아픈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마지막 세미나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을 한 가지씩 고백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그들이 술, 게임, 도박을 끊고 욕심과 정욕을 버리겠다고 결단했다. S형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해서 양육자에게 선물했고, L형제는 마가복음 50번 읽기 미션을 성공했다. 고마울 뿐이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소망동산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 같은 곳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끔 아픔과 고난을 동반하지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렇게 멋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에게 제자로서의 새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암에 걸린 것도, 재소자들이 소망교도소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분명하다. 소망동산 형제들이 하나님의 선한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차이에 대한 인식



김윤식 목사
(여호수아공동체)

지난해 우리는 국가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과 마주했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 많은 질문들이 떠오른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이다.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 앞에서 막막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바라는 이상과 오늘날 경험하는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인지다. 본래 바라고 있던 이상이 과연 무엇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사 55:8~9).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실 때 우리의 상식과 익숙함보다 예외성과 불균형을 사용하신다. 차이가 발생할 때, 어긋남이 생길 때, 세상 속 균열의 틈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신다.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난이나 고통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무엇보다 강렬한 메시지가 된다. 그제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약함과 인생의 균열이 매우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시 51:17)이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셨음을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처한 모순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부족한 상태로도 온전할 수 있다. 예수님이 친히 완전함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음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 나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무너짐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실패, 고난과 외로움, 길을 잃은 것 같은 마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을 바라봐야 한다. 세상의 균열과 아픔을 바라봐야 한다.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자신과 이웃의 약함을 바라보고, 함께 돌이켜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20170115-1132-_2012528 -90216 17. 1. 13. 8:28 Page 13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나그네를 사랑하라

안산 온누리M센터에는 15개의 이주민 예배공동체가 있습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와 각 캠퍼스에도 10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주민들을 온누리교회 성도로 맞이해야 합니다. 피부색이 같고,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같은 우리들끼리의 교회를 꿈꾼다면 온누리교회가 아닙니다. 이주민들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온누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더 심각한 인구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출산율 저하,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100조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주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민들을 배타적으로 대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700만 명이 넘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그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정말 필요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1.5세와 2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한인 디아스포라를 전 세계에 흩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바울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문화권과 유대문화권이라는 이중 언어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응력도 뛰어나고, 언어적 능력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바울을 세우고 계십니다.

고향을 망각한 나그네

세 번째는 고향을 망각한 나그네입니다. 우리들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잘살기 때문에 나그네 됨을 잊고 살아갑니다. 고향을 모르기 때문에 정처 없이 살아갑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여러 번 듣던 가요가 있습니다. 조경환 작사, 이재호 작곡, 백년설이 노래한 '나그네 설움' 입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다 / 선창가 고동소리 옛 님이 그리워도 /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타관 땅 밟아서 돈 지 십 년 넘어 반평생 / 사나이 가슴속엔 한이 서린다 / 황혼이 찾아들면 고향도 그리워져 / 눈물로 꿈을 불러 찾아도 보네

낯익은 거리다마는 이국보다 차워라 / 가야 할 지평선엔 태양도 없어 / 새벽별 찬 서리가 뼛골에 스미는데 / 어데로 흘러가랴 흘러갈쏘냐"

이 노래 가사를 보십시오. 낯익은 거리인데 이국보다도 차갑다고 합니다. 정처 없는 인생 나그네의 설움을 잘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움을 삼키며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왜 낯익은 거리가 이국보다 차갑습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향이 있기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행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나그네 된 거류민이라고 표현합니다. 법률상 주거가 가능한 사람들이지만 시민권이 없는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이 없습니다. 나그네 된 거류민으로 갖고 있는 일시적인 체류증만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빌 3:20).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신 10:19).

이 시대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에덴동쪽으로 떠나 성을 쌓았습니다. 타락한 노아의 후손들도 바벨성을 쌓았습니다. 왜 타락한 자들이 성을 쌓을까요. 성을 쌓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퍼져나가야 하는데 그들은 나그네 됨을 포기하고 안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나그네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는 대신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그네들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창 47:9).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땅으로 향하게 함으로 나그네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랑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토지를 영영 못 팔게 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 25:23).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기에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대상 29:15).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좋게 살건 힘들게 살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안 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벧전 2:11~12).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먹이고 재우고 입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입혔습니까.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그네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온누리교회에 온 편지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지리산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어린이 55명이 온누리교회를 탐방했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회가 헌신적으로 섬겼다. 고읍교회 노태곤 목사가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지난해 서빙고 온누리교회 농어촌선교회에 온누리교회를 탐방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리산 지역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온누리교회 성인예배와 차세대 예배를 꼭 경험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1월 6일은 학수고대하던 그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늦잠을 자고 있을 아이들이 일찌감치 교회에 모였습니다. 온누리교회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 청현교회, 화광교회, 부곡교회, 광월교회, 마천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도 합류했습니다. 어린이 55명이 함께 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 수원에 들러 삼성 홍보관을 관람했습니다. 삼성 홍보관은 쉽사리 문을 열지 않는 곳인데 지리산에서 아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흔쾌히 관람을 허락해줬습니다. 첫 일정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온누리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장로님과 담당 목사님이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오셔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환영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온누리교회와 하용조 목사님에 대해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고심하고 있는데 마침 교회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만난 온누리교회의 역사와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이 큰 은혜였습니다. 몇몇 아이들도 온누리교회의 선교에 대한 사명에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대학청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따라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새벽부터 교회 갈 준비를 했습니다. 연령별로 나눠서 드리는 온누리교회 차세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차세대 예배를 드리는 곳곳을 찾아다니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온누리교회 탐방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농어촌에는 차세대 예배가 따로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보통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끼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성인예배는 또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의 지경을 넓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정말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누가 농촌교회 아이들에게 이런 최고의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탐방을 잘 마치고 지리산 자락에 도착했습니다. 2박3일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 교회와 나라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 특별히 농어촌선교회 담당목사님과 장로님, 스태프, 청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지리산에서 노태곤 목사 올림

1132호 20170115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7. 1. 13. 오후 6:53 페이지 1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하태일 팀장(010-3798-3148)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예꿈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셔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세라 선교사(010-4029-7601)

예수님이좋아요팀 채용 공고
모집: 편집자 1명
경력: 경력 1년 이상 3년 이하
자격: 신학 관련 전공자(신대원 이상), 유치
부 목회 경력자(파트타임 경력 포함)
우대, 장애인 우대, 보훈대상자 우대
마감: 1월 20일까지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온누리선교재단 직원채용 공고
모집: 양지 영선 직원, 양지 기전 직원,
서빙고 온누리플라워 플로리스트,
양재 기관시설관리 직원, 양재 한식당
조리사(1년 기간제계약직)
자격: 세례교인,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인
근거주자 우대, 관련자격증 소지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접수: bible81@onnuri.org
문의: 02-3215-3102

2017년 서빙고 꿈땅 샤이닝키즈 모집 (말씀암송학교)
대상: 초등학교 1~6학년(2017년도 기준)과
부모님 중 한명
개강일시: 3월초~ 매주 토 10시~12시
(학기당 10주, 여름 국내아웃리치, 1년과정)
내용: 1, 2학기 로마서 3,5,8장 암송
모집: 1월 15일부터
문의: 황연신(010-5442-8639)

50기 인투부모교실
일시: 2월 7일~9일(화~목 10:00~17:00)
강사: 하신주 선교사 외
대상: 차세대 자녀를 두신 부모(예비부모)
관심있으신 사역자 등
회비: 12만원(30일까지 등록 시 10만원)
장소: 온누리교회(장소는 추후공지)
문의: 010-9291-8384

서울역 노숙인 의료 및 미용사역 안내
장소: 실로암사우나 후문 사단법인 참좋은
친구들 예배당건물
일시: 셋째 주 목요일 6시 30분-9시
사역: 예배후 의료 및 미용사역
대상: 사역에 관심있는 모든 분
(약사님 부족)
문의: 윤상엽 (010-9439-1180)

양 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 (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 (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묵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묵상의집
*셔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복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 샬롬기도회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비전홀A
문의: 김두진 총무(010-6298-6318)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목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공사랑 축구선교팀 회원모집
비전: 축구를 통한 선교
문의: 오명석 총무 010-6470-7131

두란노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일시: 2월 4일~3월 4일
(매주 토 오후 5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한동홀)
접수: 02-2182-9100 / www.father.or.kr
*아이스쿨에서 등록가능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 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 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 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 네팔) 매주 토 오후 7:0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본당
How Mission 목 오후 7:30 비전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주일국제예배
몽골어 예배 11:30 드림홀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쉘터

인 천
032.437.9686

주일예배
인천 글로벌캠퍼스(IGC) 운영재단 B1층
성인 1부 오전 9시 / 성인 2부 오전 11시 30분 /
성인 3부 오후 2시
차세대 (영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영어예배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고등부 오전 9시/대학청년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3층
사랑부 오전 11시 / 몽골어예배 오후 1시
주중예배 – 프리스페이스 6층
새벽기도회(월-토) 5:2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오후 7:40

강 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11:00 / 3층 주선애홀
(영상중계)
예수님의 꿈아이(유아,유치)/ 11:00/지하1층
무어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자라는땅(초등) / 11:00 / 지하1층 킬보른홀
파워웨이브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수요선교예배 / 19:20 / 1층 시안홀

1132호 20170115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7. 1. 13. 오후 6:53 페이지 2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굿모닝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471-85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염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이훈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7 Tarn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롱경**
  문봉주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542-0083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Nagano-ken Ueda-shi Oaza Suwagata 1377-
  64 JAPAN
-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
  AGAWA-KU SHIMAI-CHO61 EHWA DAIA-
  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Saiin Pram Bld 6F, Sanjocho 14, Saiin
  Wookyoku, kyoto japan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2-665-7754
  opposit embassy of Viet Nam, 23rd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김영철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김대진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53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ō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장춘**
  박시형 목사 86-131-7900-0752
  中国 吉林省 长春市 南关区 永长路 213号 onnuri.
  zhongguo jilinsheng changchunshi nanguanqu yongchanglu 213hao onnuri.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박형준 신기섭
박태영 안광국 김종민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일영 강일하 권영환
권오향 권용갑 김경훈 김관수
김도균 김도윤 김상수 김성욱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윤식
김재석 김정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렴문홍
마이크리 문영재 박성은A 박성은B
박샤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승훈
박윤헌 박철웅 석승호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차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우윤상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윤경숙 윤길중
윤석원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동훈 이민욱 이상진
이서진 이성민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임항재
장시몬 전신익 전재표 전홍천
정상훈 정성훈 정웅규 정재륜
정재욱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Philip Arndt

◈전도사(전임)
길혜영 김은영 김용민 김재승
김종호 김진아 문장원 박승훈
배행삼 변대섭 송석근 유승현
윤현규 이강현 이우람 이종현
이준인 임경헌 정한효 한영철

◈경배와찬양 목회자
허스데반 이기복

◈협력목사
김도일 이기복

◈부목사(파트)
강은혜 곽상학 김기범 김지애
김종영 김창성 백영미 손 숙
싱루아매놀 안희진 유세든제이 유승덕
윤용국 임선아 최봉오 차혜이미
Enoch Kwaku Hanokh

◈전도사(파트)
강민석 강성효 강지영 강희성
고동일 고인호 기호진 김기락
김기태 김덕기 김민석 김민영
김성웅 김세현 김세환 김승관
김영신 김요한 김용석 김은하
김은혜 김진아 김찬숙 김태환
김형종 김혜경 김희연 나지혜
노태규 문대성 민경윤 박광규
박근명 박근범 박상명 박신광
박양원 박은미 박은빛 박은자
박이호 박종익 박지원 박진혜
방세미 배순양 백영미 서수민
서영희 서종욱 서 철 송지은
신경훈 신대근 신대준 신유수
신중건 신하선 신현민 안사무엘
안용곤 양은주 양진법
오스라 오준현 유 경 유진아
윤기철 윤상복 윤수신 윤정노
윤준석 윤치연 윤형립 이경선
이다솔 이루주 이미령 이선영
이성광 이승윤 이양권 이완희
이용기 이원준 이은경A 이은미
이은희 이재석 이정도 이종민
이지원 이진이 이창우 이춘호
이풍주 이현대 이현석 이혜지
임요한 임지성 임지훈 임호진
장동원 장유미 장윤진 장재원
장춘혜 전가영 정민희 정에스더
정영광 정영희 정지환 정진아
조묘구 조상훈 조성환 최규종
최대흥 최성규 최성필 최영빈
최정현 최현웅 캐럴라 요셉
하청훈 한성훈 허륜호 허영은
현신원 홍세나 홍세녹 홍순영
Lkhagvasuren Gan-Otgon

◈사역장로
강인지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선
김남열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순 김수광 김수웅
김수역 김영길 김원경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용성 김원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형석
김종승 김주흥 김주현 김진국
김철수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류지영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용국 박영태 박찬빈 배종수
백승웅 백호현 서진봉 서창희
서찬교 성창섭 송만석 송일섭
송유신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우권 안국영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완영
유재천 윤성열 윤영오 윤지준
이강범 이건재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융대 이재준
이종순 이창남 임광택 장양희
정강무 정돈영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윤채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최선수 최 명 최창규 최충길
최희영 피터웰디 하영철 하용기
한종대 한형식 함선호 홍기명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기석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영중 강의선 강찬석 강철호
고 건 고다아라 고영주 곽진성
권득한 권영석 권오습 권오형
권용성 권용한 김 완 김 웅
김 원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기영 김기호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종 김명현 김명훈 김민호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인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북
김성종 김성진 김승열 김연상
김영수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
김용호 김의득 김인선 김인태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홍 김지현
김지훈 김창욱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학중 김화수 김효구
나상권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노기홍 노흥규
류기범 명영찬 문성기 문영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동현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무원 박명균
박명률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종현
박지수 박태성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 문 배기영 백남인 백흥기
상병선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손한기 송동섭 송영범
송영태 송종환 신무환 신민호
신영각 신학철 신헌승 신현길
신현종 심길섭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심희돈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상식 양유식 양주현 양춘경
양충식 오상록 오성훈 용내문
우승구 윤수신 윤원호 윤정노
유병훈 유윤하 유의준 유재홍
육동건 윤기홍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현덕 윤형주 이 철
이경찬 이경훈 이관수 이광순
이광형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우곤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호 이정구 이정근 이종우
이태열 이태환 이한열 이해달
이헌규 이현조 이홍선 이화영
이희주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정열 이종길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 광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선철 장형준
전구영 전영수 전장하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병균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상현 조성환 조정구 조희동
주재량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민철 최상근
최상민 최성완 최주관 최진성
최창수 최한우 최현재 편무욱
하성기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영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함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필우
허형석 홍덕표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종철 홍해남
황병원 황영옥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마흥규 문태준 박동순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욱룡 장승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협동장로
강승모 권준길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처드박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임웅규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세일 김정결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서동희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이미선 이민호 이신영 이수정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미라
조익현 조정훈 전병곤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훈희 홍용식
홍정표

◈반주자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순인 김연아 김은경
김유나 김은성 김은영 김인영희
김주나 김지영 김지희 김민희
남궁진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숙 박진용 방 휘 석지혜
이혜지 안은영 양지연 양지영
양현선 우경진 유재경 유지영
윤정희 윤현지 이강석 이나래
이예진 정경미 정다혜 조영혜
조한나 최은미 최희정 한은미
황보승 배원신 강영은 황대준
허윤선

해외 온누리교회

◈OMA담임목사
김형철 박재영 이정엽 이중재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권혁빈
금경연 김대진 김시연 김영철
김철진 김철희 김태완 박재영
나사야타 산이치 마크최 문봉주 박만규
박시형 심상현 서재범 서 현
유현목 이성권 이영선 이한규
이 훈 정장철 최영민 하카타타 마키

◈부목사
강일하 곽성환 권희경 금동섭
김미정 김인숙 김시연 김성종
김재형 김태환 노경호 문성일
박근택 박대원 박신웅 박수환
박주영 박택근 방지남 백인호
서성광 여필종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성영 이세영 이일표
이재웅 이지훈 이종실 전상현
전현규 전홍렬 정동윤 정용환
정호석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영진 최정무 허 민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James Park joseph Chu
Joe Lee Lee Yi Sam An

◈전도사
강성근 강찬호 강창환 가카타예이토
김산성 김성민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우신 김정옥 김지현
김진완 김현경 구혜선 노경호
레이첼백 마커스 문하나 민성민
박우람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형진 박헌얼 박현욱 배윤희
백도훈 백일승 샘 리 서민표
서재욱 설산정 손미경 손주은
송준헌 신기원 안지현 양달샘
연공주 윤경선 이복음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재경 이지나
이현우 윤성민 장세윤 장제홍
지자영 전희동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승철 조 단 최성배
최은정 최정수 최진숙 크레이시 메구
하보라 핸슨오 홍가람 Christine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Tommie Njobuo

◈장로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재동
백 학 손진성 신중수 이덕한
이상덕 이만영 이문호 장우진
정길안 조록형 조성민 허규회
홍규석

◈명예장로
김용석

◈협동장로
강광일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연수 정두호 정석환 최승호
윤한돈 이재원 임헌식 최태영
김종수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남명호
노용진 도승희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성화 조요셉 최승준
최정혜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성경집중반-이사야
일시: 1월 19일 ~ 3월 30일(매주 목, 10:00~13:00)
대상: 이사야서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은 모든 성도
강사: 김진학(목동중앙교회 담임목사, ACTS연구교수)
장소: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3호선 도곡역)
문의: 02-2078-3456, www.biblecollege.or.kr

기독교영성의 이론과 실제
일시: 2월 9일 ~ 4월 27일(매주 목, 총12주, 14:00~17:00)
대상: 영적 성숙을 갈망하고, 기독교영성에 대하여 배우기 원하는 모든 성도
강사: 유해룡 교수 외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문의: 02-2078-3456, www.biblecollege.or.kr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학습 자원봉사자 및 후원품 모집
검정고시(수학,과학,윤리,국사) 및 악기(통기타) 후원
문의: 임재금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문의: 이주현 과장(070-4489-6889)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기계목욕 및 안내 자원봉사자 모집
시간: 기계목욕(화요일 10:00~12:00), 안내(시간협의)
문의: 길다솜 사회복지사(3407-2747)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베이비부머&시니어 대상 '행복한 요리학교'
대상: 서울시 거주 만 50세 이상 남녀 어르신
일정: 1분기(1~4월), 2분기(5~8월), 3분기(9~12월)
남성A반(화, 10시) / 남성B반(수, 10시)
여성A반(화, 13시) / 여성B반(수, 13시)
안내: 분기별 100,000원(총 12회기 진행)
문의: 허정훈 사회복지사(02-794-6100)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내용: 식자재 다듬기, 배식, 설거지
시간: 매주 화, 수, 목 09:30~14:30(식사시간 포함)
문의: 이소미 사회복지사(070-4340-2599)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이영환 팀장(02-985-3609)

재 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모든 상담 사전예약 필수)
화~금: 오전10:00~오후5:00, 토~일: 오전10:30~오후3:00)
면접상담 신앙, 개인, 부부, 가족, 이동, 청소년 상담, 미술치료
전화상담 위기시에만 제공
심리검사 MMPI-2, MBTI, 종합심리검사, 에니어그램, U&I 학습, 진로탐색검사
특수상담 세무상담: 첫째 주일 오전 10:30~12:00
정신과,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암환자 상담: 주일 오후 3:00 이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수요일 오후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

1/5(목) 송파공동체 방해룡 집사 부친상 고 방한성
1/6(금) 이촌 박정란 권사 모친상 고 이복
1/6(금) 성북 안윤경 자매 시모상 고 김남숙
1/7(토) 마포 권미현 자매 부친상 고 권팔석
1/7(토) 분당B공동체 이태희 집사 빙부상 고 송우용
1/7(토) 강남C공동체 송명식 성도 부친사 고 송수창
1/8(주일) 강남A공동체 한국일 성도 부친상 고 한상현
1/8(주일) 동작 배정기 성도 모친상 고 박삼금
1/8(주일) 광명 황선자 성도 모친상 고 유영녀
1/9(월) 용산 이명선 집사 부친상 고 이윤근
1/9(월) 관악금천 박경욱 집사 모친상 고 김규채
1/9(월) 성북 허경은 권사 부친상, 홍성호 장로 빙부상 고 허직
1/9(월) 고양은평 황숙령 성도 부친상, 이준호 성도 빙부상 고 황병일
1/9(월) 가정사역 채지인 자매 모친상, 이준희 형제 빙모상 고 지순희
1/9(월) 하나 최순애 성도 모친상 고 임장례
1/12(목) 여의도 김성수 성도 모친상 고 이인숙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문창극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이소정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1132호 20170115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7. 1. 13. 오후 6:53 페이지 3

영혼을 살리는 콘텐츠로 더 가까이 가는 2017 CGNTV

www.cgntv.net

#1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와 나눕니다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영화관 상영, 한국교회 순회 상영을 통해
서서평 선교사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나눕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 프로그램

말씀과 기도로 종교개혁의 참뜻을 깨닫고
삶 속에 나타나도록 적용합니다





기독교방송 최초 TV 드라마

그때 그 시절 따뜻했던 교회와
우리들의 추억을 드라마로 만나봅니다





#2 다양한 주제와 포맷의 콘텐츠로 시청자와 소통합니다



통일한국 다큐멘터리

막힌 담을 허물고 남과 북이
하나되기를 소망하는 다큐



나침반 C

시청자와 함께하는
소통형 강연 프로그램



모바일 맞춤 영상 KNOCK

다음세대를 깨우는 SNS 전용
크리스천 문화 콘텐츠